

80년대 말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비장한 절규’를 던지며 노동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던 작가 방현석씨(39). 《십년간》 이후 5년 만에 펴낸 《당신의 왼편》(해냄)은 그가 떠났던 5년간의 ‘출정’에 관한 보고서이자, ‘상처뿐인 귀환’에 대한 뼈아픈 고백서다.

“한 마디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한 순간 ‘절망’으로 바뀌었던 거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시간이자 더 나은 곳으로의 출구를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기억하는 힘으로서의 문학

《당신의 왼편》은 격변의 80년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이른바 ‘386세대’의 번민을 그린 ‘후일담 소설’이다. 작품 속에는 설령 당 한 그릇 값의 일당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의 고통, 칠성대 위에 눌려져 온갖 고문을 당하는 운동가들의 신음이 ‘날것’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문학이란 ‘기억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은 경멸받았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에 대해 기록하고 싶었고, 외로운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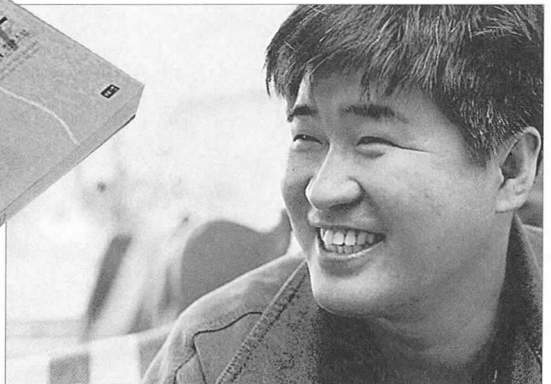
작가는 문학도인 현현욱과 음악도인 도건우의 대조적인 삶을 묘사하며 작품을 이끌어 간다. 시골 학교의 가난한 우등생이었던 현현욱과 탄탄한 중소기업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도건우. 그러나 가혹한 시대는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다. 현현욱은 대기업 총수의 자서전을 써주며 살아가고, 위장취업한 현장에서 손가락을 잘려 음악도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도건우는 작고한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 도건우의 죽음 이후 현현욱은 사표를 내고 《PEOPLE'S NEWS》라는 인터넷 신문을 창간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다.

“예술도 혁명도 일종의 꿈꾸기라고 할 수 있



《당신의 왼편(1·2)》  
해냄/A5신/300면 내외/각 7500원

방현석씨



습니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술과 혁명의 공통점이지요. 가장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을 빌어, 시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아픔을 섬세하게 그리고자 했습니다.”

###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렇듯 이 소설은 ‘꿈꾸기와 꿈꾸는 자의 의미심장한 좌절’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좌절과 절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좌절과 절망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눈부신 희망의 단서를 그는 포착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작가는 80년대 세대가 가졌던, 양보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대해 목청을 돋운다.

“사람들은 그저 종이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것만 얘기하겠죠. 저 종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기의 기압과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죠.” 소설 말미에 작가가 작중 인물 상호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 ‘386세대’의 고뇌 다룬 후일담 소설

장편소설 《당신의 왼편》 펴낸 방현석씨

“문학이란 ‘기억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은 경멸받았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에 대해 기록하고 싶었고, 외로운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꿔던 꿈의 상당부분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비행기를 접는데 쏟았던 간절함, 짧지만 창공을 날았던 시간의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가는 이 소설이 ‘후일담 소설’로 불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후일담이란 말에는 과거완료형의 시점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다. 그에게 80년대는 ‘지나간 시절’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다.

이천년 새봄, 우리를 80년대의 암울한 기억속으로 몰고 갔던 작가 방현석. 아직 희미한 예감으로만 느끼고 있지만, 다음 작품 역시 현실에 튼튼히 뿌리박은 그만의 강건한 언어들로 직조될 것이다. 90년대 소설들의 ‘현실감을 잃어버린 언어’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그의 새로운 ‘출정’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최갑수 기자